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서-

창세기17:9, 디모데후서1:13-14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237의 천명, 소명, 사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강단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성취의 응답을 매주 받아가다가 세계복음화의 237의 서밋 치유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이다. 그 마지막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날 정도로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잔병이 있을 정도로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회시스템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다. 이렇게 목회와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과 영적인 시스템을 알려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과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제자로 양육하는 복음적인 인턴십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디모데와 같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시간상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란다.

(1)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사람은 초점을 어렵고 두려운 것에 맞춘다. 그러나 전문성의 능력, 성령충만의 능력, 전도의 능력에 초점을 두면 된다. 하나님

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미래의 언약을 주셨다. 여러분이 복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 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미래의 응답을 앞당겨 주신다.

(2) 디모데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복음적인 수칙은 충성된 제자들을 찾아서 복음전도를 위탁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의 말을 디모데가 듣고, 그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교회운동의 요절이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다른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충성된 자가 다락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을 300, 30, 3명을 찾는 것이다. 그 방법이 지교회의 성공하기 위해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지교회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수첩 들으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먼저 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었을 때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릴 충성된 제자들을 붙여 주실 것이다.

(3) 교회와 목회자의 배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배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충성된 제자로 체질을 바꾸시기 바란다. 그것이 복이다.

(4) 복음전도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삶에 얼마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마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제자이다. 특히 목회자들과 전도제자들은 고난과 삶의 문제들에 얼마여서는 안 된다.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 신앙이 있다. 초급신앙은 구원은 받았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원망스럽고 불편하다. 예배를 빠졌다가 나왔다가 한다. 중급신앙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런데 응답 주실 때는 기쁘고, 은혜 안 주실 때는 스트레스 받는다. 고급신앙은 다르다. 응답과는 관계없다. 내가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초고급 신앙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응답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터이다.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고 미리 미래의 응답이 온다. 우리 후대들은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5)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킬 것을 권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우리도 지키고 체질로 만들어야 할 것은 항상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다. 모든 성도들은 300명집이 될 때까지 도전해야 하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읽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전도캠프와 전도의 5기초인 다락방, 탐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인생캠프를 말하는 것이다.

(6) 성경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하고 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메시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교회, 교단, 성경적 정통교리를 알아야 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가정,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과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전체가 램넛트 교육과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237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후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최종적인 절대목표는 성도들을 완전복음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복음 안에 사도행전 1:1, 1:3, 1:8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결국은 6가지 도구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델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이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이전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마음과 영혼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디모데는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바탕 위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배경이 아니라면 한을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다.

(2)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3)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것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가장 중요한 언약의 절대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은 후대들에게 정확한 믿음과 복음을 전달하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과 같은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7가지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모든 종족 중에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내어 양육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어떠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한다. 24시간 기도하면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 언약을 전달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이것이 서밋타임의 시간이다. 많이, 길게 할 필요 없다. 몇 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미리 보여 주신다. 이것이 신상생활이다. 체험하시기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간은 내가 복음을 위해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인지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켜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의 정의는 값어치 있고 귀하고 깨끗한 것, 다 살리는 것, 진정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종류는 교회, 예배, 복음, 성경, 가정, 후대, 찬양, 사랑, 회생, 헌금, 헌신, 선교와 선교사, 봉사하는 손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스승, 목사와 전도자, RUTC이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237 치유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소중한 교회와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천명, 사명, 소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참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옵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시스템과 RUTC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237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